

중년기 여성의 신체·정신건강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가족관계, 심리적 변인의 영향

이 성 연*(한국도자기부설 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실장)

김 영 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의 신체·정신 건강에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관계 변인, 심리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 중년기 여성의 교육이나 상담현장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청주시내에 살고있는 중년기 여성 349명이었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일반적 배경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폐경, 노후대책, 친구, 종교참여)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중년기 여성은 폐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노후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 학력과 월수입이 높을수록, 또한 직업이 없는 경우 친구를 가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참여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배경에 따라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부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종교가 있으며, 노후대책 마련을 했거나 친구가 있는 경우 중년기 여성은 부부관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관계는 종교참여의 빈도가 높고 친구가 있는 경우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학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배경에 따른 심리적 변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여성의 학력이 대졸이상이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거의 매일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노후대책 마련이 되어있고, 친구가 있는 여성인 경우 내외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연령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폐경을 하지 않은 경우 중년기 여성이 자신의 주관적 연령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년기 여성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노후대책, 폐경, 연령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변인에서는 부부관계 요인만, 심리적 변인은 내외통제성과 주관적 연령 모두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월수입, 노후대책, 연령으로 나타났고, 가족관계 변인에서는 부부관계 요인만, 심리적 변인에서는 내외통제성과 주관적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